

안동문화 **씨** FEEL

느낌이 있는 관광 | 2022 Summer VOL.58

© kayamae



이육사문학관

CONTENTS

A N D O N G ★ ★

04

Active Andong

이육사문학관
‘꼭’ 기억해야할 장소에 가다



10

Notable Andong

가일 서가의 여름



16

Delicious Andong

반월커피, Tea수완
야초원숯불왕갈비, 옥정밀



(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계절마다 만들어 내는
안동문화필은

안동을 여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드립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우리 마음의 고향 안동을 여행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안동의 문화**를 전합니다.

안동이여야만 가능하고 안동이어서 가능한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나누는 문화를 실천합니다.

우리지역 문화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문화자산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20

Outstanding Andong

화산 기슭은 가르고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을 잇는 유교문화길



26

Nightwalk Andong

나를 마주하는 사색의 공간
안동 맹개마을



32

Gather Andong

재단 소식



34

☆ 안동, 머물다

#2. 임청각

38

☆ 안동, 지금 이곳

로그아웃, 쉽

발행인 이희범 발행처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편집책임 김별 편집위원 황진현 남성원

주소 36709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0 대표전화 054-840-3400

팩스 054-852-9230 이메일 kb1228@kfce.or.kr

홈페이지 www.kfce.or.kr www.maskdance.com www.tourandong.com

발행일 2022년 7월(통권 제58호) 디자인 디자인판

제호(題號) 안동문화 **FEEL** 제자(題字) 장중규

* 본지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허락없이 무단 복사, 전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육사박물관 '꼭' 기억해야할 장소에 가다

글 김균탁 이육사박물관 학예연구과장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백운로 525번지에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뜻깊은 장소가 있다. 일제의 폭력 앞에서조차 최후의 순간까지 굴복하지 않고 저항을 이어나며 절개를 지킨 사람, 온갖 고문과 고초에 병을 얻어 직접 투쟁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글로써 끝까지 저항의지를 꺾지 않았던 사람, 그의 고향이 바로 도산면 원촌리에 있는 것이다. '원촌(遠村)'이라는 지명은 그 이름부터 우리의 흥미를

끈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마을의 이름이 생기기 전, 사람들은 이곳을 '말 맨데'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분지를 둘러싼 산 중턱에서 말을 키웠기 때문이고, 이곳에 '역(驛)'이 있어 말을 바꿔 타고가거나, 쉬어가는 곳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 맨데'라는 발음을 직접해보면 느껴지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발음이 너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름을 빠르게 연속으로 발음해 '먼먼데'라



불렸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역시 ‘말 맨데’를 계속 발음해보라. 그러면 결국 ‘먼먼데’와 유사한 발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이름에도 문제가 있다. 다시 함께 ‘먼먼데’를 발음해보면 알 것이다. ‘먼’이 두 번 중복되어 이 이름 역시 발음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발음의 편의를 위해 한 글자를 줄여 이 마을을 ‘먼데’라고 불렀다. 그리고 행정구역으로 재편되면서 마을은 ‘멀리 있는 곳’, ‘멀리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멀 원(遠)과 ‘마을 촌(村)’이 합쳐진 원촌이 되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할 아니 기억 속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펜을 든 강렬한 이미지를 가진 저항 시인이 있다. 그는 1944년 조선 내 무장투쟁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무기 반입을 시도하다 체포되어 북경으로 이송 북경의 감옥에서 옥사했으며, 그가 남긴 시는 대한민국의 제1차 교육과정에서 성립된 1954년부터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우리 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2022년 전국수학능력평가 국어영역 현대문학 시 부분에도 그의 시 〈초가〉가 문제로 출제되어 다시 한번 그가 남긴 문학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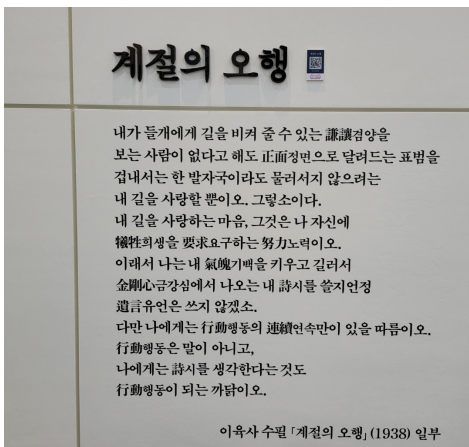
이쯤 되면 그가 누구인지 다들 짐작했을 것이다. 그는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항시인 육사 이원록 선생(陸史 李源祿, 1904~1944)이다. 그리고 도산면 백운로 525번지에는 그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전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건립된 이육사문학관이 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이 교장으로서 세운 조선혁명군사 정치간부학교를 1기생으로 졸업해 무장투쟁을 이어온 것은 물론이고, 「청포도」, 「절정」, 「광야」, 「꽃」, 「교목」 등의 절창을 통해 굴복하지 않는 민족정신을 이어온 육사 이원록 선생의 독립 투쟁과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한 이육사문학관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다.

선생은 1904년 5월 18일 진성 이씨 이가호(李家鎬, 퇴계 이황의 13대손)와 한말 일제에 맞선 의병장 허형(許衡)의 딸 허길(許吉) 사이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909년부터 조부 치헌 이증직(痴軒 李中植)에게서 한학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1916년부터 보문의숙과 이를 공립으로 개편한 도산공립보통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또한 1924년부터 1927년까지는 일본과 중국에서 유학을 했으며 1927년에 일어난 ‘장진홍의사 조선은행대구지점 폭파사건(10월 18일)’에 연루되어 1년 7개월의 수감생활을 겪었다. 이때의 수인번호 264는 이후 이육사(李陸史)로 일제에 항거하는 선생의 필명이 되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원록이라는 그의 본명보다 이육사라는 필명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 이육사문학관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선생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육사라고 알고 있는 선생의 이름은 총 여덟 개나 된다. 이 여덟 개의 이름만 다 기억해도 선생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떠한 생각으로 독립 투쟁에 뛰어들었는지 알게 된다.

선생의 본명은 이원록(李源祿)이었지만, 어린 시절에는 ‘원삼(源三)’으로 불렸다. 동네의 친구들과 어른들은 그를 ‘원삼아’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옛 어른들이

그렇듯 그 역시 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자는 '태경(台卿)'이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름인 '이육사', 이 이름도 한글 표현은 같지만 다른 뜻을 지닌 네 개의 이름이 있다. 그가 처음 이육사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대구사회단체개관」이라는 글에서였다. 그는 이 글에서 수인번호 즉, 숫자로 된 이름인 대구 이육사(大丘二六四)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 뒤 육사라는 이름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처음에는 '고기 육(肉)'과 '쏟을 사(瀉)'를 쓴 '육사(肉瀉)'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이는 당대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쓴 이름으로, 고기를 먹는다는 것, 그건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이고, 부를 축적했다는 것은 일제의 편에 서서 아첨과 야부를 했다는 뜻일 것이다. 즉,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은 분명히 탈이 나게 될 것인데, '쏟을 사(瀉)'자에는 '설사'를 한다는 뜻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 즉, '고기를 먹은 사람은 반드시 설사를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일제에 아첨하는 사람은 반드시 탈이 날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선생이 다음으로 사용한 이름은 '죽일 육(戮)'자에 '역사 사(史)'라는 이름이었다. '역사를 죽이겠다'는 의미인데, 일제에 의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이름은 일제의 감시 대상이었던



선생에게는 위험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집안 어른의 권유로 같은 의미를 지닌 '물 육(陸)'에 '역사 사(史)'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인 이육사(李陸史)가 된 것이다. 즉 이육사와 관련된 이름만 해도 총 4개로 그의 삶과 내력을 짐작하게 해준다. 지금까지 필자는 총 7개의 이름에 대해 말했다. 앞에서는 8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왜 7개만 말했냐면, 나머지 1개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선생이 가졌던 직업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그의 직업을 '시인'으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직업은 '신문기자'였다. 그는 '중외일보 대구지국'과 '조선일보 대구지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며 쓴 기사와 평론에 주로 사용했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활(李活)'이다.

얼마 전 이육사 선생이 살아생전 즐겨 읽었다는 책의 사인(sign)이 '이활'이라는 친필로 확인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즉 그는 평상시에 이활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해 왔었던 것이다. 이육사문학관을 찾아오는 이라면 이처럼 선생의 이름 8개에 대해서만 알아가도 선생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느끼고 짐작할 수 있다.

선생은 1927년 첫 번째 수감 이후 1944년 베이징 주재 일본 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 17차례 수감 되는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았다.

선생은 독립운동가로서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는 한편, 시인으로서도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그렇기에 선생은 우리 역사에서 저항 시인이라는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했으며, 그중에서도 무장투쟁과 문학 투쟁을 함께한 유일한 인물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그는 1930년 1월 3일 조선일보에 「말」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청포도」, 「광야」, 「절정」 등 40편의 주옥같은 시를 남겼다. 일제강점기 많은 문인들이 펜을 꺾거나 일제에 부역할 때도 뜻을 굽히지 않고 굳건히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시, 저항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짐하는 시를 남긴 것이다. 선생이 문학을 통해 독립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었던 사실은 선생이 남긴 수필 「계절의 오행」 속에 나오는 한 구절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생은 「계절의 오행」에서 시를 쓰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나에게는 행동(行動)의 연속(連續)만이 잇슬 따름이요 행동(行動)은 말이 아니고 나에게는 시(詩)를 생각하는 것도 행동(行動)이 되는 까닭이요'라고 즉, 시 역시 조국의 독립을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청포도」 속에 등장하는 '내가 바라는 손님'을, 「광야」 속에 등장하는 '천고의 뒤에 /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어떠한 시련에도 꺾을 수 없었던 강인한 조국 독립의 의지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육사문학관은 안동시청에서 차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있다. 이곳에 도착하면 먼저 산속에 펼쳐진 원촌(遠村)의 풍경에 놀라게 된다. 왕모성(王母城)과 수정암(水晶岩) 쌍봉에 둘러싸인 넓은 분지에는 선생이 직접 말했듯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닌 무서운 규모'('계절의 오행'중에서)가 느껴진다. 이때 무서운 규모란 아름다운 경치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의 정신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원촌의 풍경을 둘러보고 계단을 올라오면 이육사문학관 정신관이 있다. 정신관은 선생과 관련된 유물과 흠여져 있는 자료와 기록을 한 곳에 모아둔 곳으로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이육사 선생의 독립운동과 문학 활동, 순국,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대구격문사건,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등의 자료와 모형, 그리고 시와 비평 등이 게재된 당시의 도서들을 통해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논객으로서의 선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베이징 감옥에서 순국 후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독립운동가 이병희 여사의 생생한 육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생의 생애 마지막 사진을 비롯하여, 서대문형무소 수감기록카드, 등록문화재 제713호인 육필원고 「편복」등 선생을 기억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형무소를 재현해 놓아 고통스러웠던 수감생활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2층은 선생의 흉상을 비롯하여 선생을 그리는 다양한 마음, 연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원촌마을과 가계도, 유학생황, 대구에서의 활동 등 선생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선생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수감생활이 시작된 '장진홍의거 사건', 육사라는 이름의 의미와 유래 등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꽃땀아리 전시실이라는 작은 전시관에는 친인척 혹은 친우와 주고받은 편지를 비롯하여, 육필로 남긴 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층에는 문학카페 '노랑나비'가 있는데, 카페에서는 원촌마을의 전경을 보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관련된 기념품을 구입 할 수 있다.

3층은 선생의 다양한 활동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이 있으며, 200명 정도가 함께 할 수 있는 다목적홀과 세미나실이 있다.

정신관을 관람하고 나오면 바로 앞에 육우당(六友堂)을 만날 수 있다. 육우당은 생가를 복원해 놓은 곳으로 여기서 선생의 육형제가 태어났으며, 육형제의 깊은 우의를 기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건물의 구조는 '口'자 형태이며 앞채는 사랑채로 방 두 칸, 중간 마루 한 칸이고 뒤채는 방 두 칸, 마루 한 칸, 부엌 한 칸으로 되어 있다. 사랑채의 오른쪽은 팔작지붕인 반면 왼쪽은 맞배지붕의 형태를 띠고 있어 고풍스러운 목조건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정신관 뒤에는 이육사문학관 생활관이 있는데, 이곳은 80명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1실의 정원은 4명이며, 총 20개의 방이 있다. 각 층마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어 문학관의 야경을 볼 수 있는데, 산책로를 따라 펼쳐지는 하늘의 별과 땅의 불빛이 만들어 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장관을 이룬다. 특히 이곳 생활관은 경북 북부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역사적 공간과 문학적 공간을 잇는 거점으로 활용이 용이하다.

이육사문학관은 경상북도 제1호 공립문학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경상북도 내 유일한 공립문학관이다. 따라서 이육사문학관에서는 그 규모와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봄, 여름, 가을이면 이육사문학축전이 열린다. 이육사문학축전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과 학자들이 초청되어 학술발표, 북콘서트, 낭독회 등이 이루어지며, 시노래 가수과 다양한 극단이 초청되어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이육사 선생이 살았던 시대와 그의 생애를 알 수 있는 이육사아카데미, 그의 문학을 통해 문학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생애전환 사업 등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육사문학관에서는 육사 이원록 선생 추념식, 청포도 사생대회, 문학주간, 해외이육사문학제, 육사시문학상 시상식, 시낭송대회, 육사백일장, 문학학교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역사는 의식으로도 남지만 공간으로도 남는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이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 남아있을 때, 우리를 이어 온 유구한 역사의 장엄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짐을 싸자. 그리고 오늘 당장 이육사문학관을 찾아 선생이 삶으로 보여준 강인한 정신을, 시로 그려놓은 서정의 세계를 몸으로 느껴보자.



새로 발굴한 시조와 몇 편의 편지와 산문이 더해진 데 이어 '원전주해 이육사 시전집'(예맥, 2008년)에서 산문과 편지 확인된 이육사의 글은 모두 96편으로 현대시 36편 시조 1편, 한시 3편, 소설 1편, 번역 5편(시 3편, 소설 2편), 수시시조로 9편, 방문기·서거·기타 18편, 제문과 저하는 글 2편 등이다



이육사문학관과 함께 생애전환을 준비하다 [22년 하반기] 2022.6.8~7.21
소천 권태호 음악관 매주 저녁 6시 30분
주최 (사)이육사추모사업회 주관 이육사문학관

강의 일자	강의 제목	강사
6월 8일 (수)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동순, 시인
6월 9일 (목)	내가 수필을 쓰는 까닭	장은주, 수필가
6월 15일 (수)	우리 고대문화예술과 상징	김양동, 고대문화연구가
6월 16일 (목)	우리 고전문학의 상상력	신호원, 안동대학교 교수
6월 22일 (수)	우리 예술의 전통과 상상력	이동국, 예술의전당 수석 큐레이터
6월 23일 (목)	상상력 자극을 위한 영화보기	안동 CGV
6월 29일 (수)	시 읽기와 세상 읽기 1	손병희, 이육사문학관장
6월 30일 (목)	시 읽기와 세상 읽기 2	손병희, 이육사문학관장
7월 2일 (토)	이영철의 그림과 미술관	이영철, 화가 (현장체험학습)
7월 6일 (수)	시 읽기와 세상 읽기 3	손병희, 이육사문학관장
7월 7일 (목)	나는 이렇게 쓴다 1	이동백, 시조시인
7월 13일 (수)	나는 이렇게 쓴다 2	이인화, 소설가
7월 14일 (목)	나는 이렇게 쓴다 3	권석각, 시인
7월 15일 (금)	이창동 감독 특별전 (영화 "시")	안동 CGV (이창동 감독과의 대화)
7월 16일 (토)	이창동 감독 특별전 (영화 "바람")	안동 CGV
7월 20일 (수)	나는 이렇게 쓴다 4	김지선, 시인
7월 21일 (목)	나는 이렇게 쓴다 5	안장학, 시인

신청 및 문의 054-852-7337 이육사문학관 홈페이지(www.264.or.kr) 선착순 25명

제19회 이육사문학학교 2022. 7. 30 (토)
주최 (사)이육사추모사업회 주관 이육사문학관 후원 안동시·국가보훈처

참가대상 초/중/고/일반/가족 ※세부일정은 이육사문학관 홈페이지 참조

모집인원 선착순 50명 ※신청 : 이육사문학관 홈페이지 (www.264.or.kr)

집결장소 7월 30일 오전 9시 **북문 원정·이정** (정문 옆 휴식공원) ※관광버스로 이동, **식약식품**을 원하시면 신청시 요청 바람

참가비 1인 10,000원 ※입금계좌 : 농협 351-0703-1729-83, (사)이육사추모사업회 참가자 전원에게 수료증 수여 참가자 전원에게 이육사문학관 **외식증** 증정

문인답원

활성화 시인	신현규 시인	오른 시인	유계영 시인	최지인 시인
©민원사	©강비	©문화과지성	©문학동네	©강비

문의 및 신청 **www.246.or.kr / 054-852-7337**



가일 서가의 여름

글 이경아 『나는 안동에 삽니다』 작가

흑백사진 출처 조이사진관

바쁜 일상 속에 작은 심표를 찍고 싶을 때 찾아가는 곳이 있다.

풍천면 가곡리 가일마을에 있는 한옥서점, 가일서가가 바로 그곳이다.

그곳에서는 어느 자리에 앉아 어느 방향으로 책을 펴들던지 나의 좋았던(佳) 날(日)들과 통하는 마법의 문이 열린다.

가일~가일~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고 나만의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그날은 어김없이 또 하나의 가일이 되어 내 삶에 소중한 재산으로 든든하게 저장된다.

가일서가(佳日書架)

아름다운 일출을 가진 마을의 이름 덕분에 서가의 이름도 ‘가일’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한사코 이름의 의미를 ‘아름다운 일출’이 아닌 ‘좋은 날’이라 고집한다. 마을 뒤 정산꼭대기에 올라가 일출을 보며 감탄을 한 적도 있지만, 서가 대청에서 책을 읽으며 보내는 시간에 비할 바가 못 되기에 ‘가일(佳日)-소박하고 소소하지만 좋은 날’이라는 쓸데없는 나만의 고집을 꺾고 싶지는 않다.

가일서가의 건물은 원래 안동의 대표적인 학자인 병국 권구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었다. 당시의 서원들은 교육공간과 숙식공간이 한 건물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곳은 교육을 위한 노동서사와 숙식을 위한 노동재사 두 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다. 그 중 노동재사가 지금의 가일서가 건물이다.

250여 년동안 이 공간은 무수히 많은 좋은 날들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빛을 내는 시간이 있었고 1919년이 그랬다.



1919년, 한 청년이 3.1운동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22세의 청년 권오설이다. 그는 문중 소유인 노동서사에 원흥학술강습소를 열어서 지역 청년들에게 독립정신을 가르치며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을 펼쳐 나간다.

그 시절 가일마을은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희망과 열정으로 매일이 반짝이는 날들이었다.

권오설 선생은 풍산 가일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릴 적엔 한학자인 아버지에게서 한학을 배웠으며 후에는 대구와 서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신교육을 받았다. 그러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학업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었고 졸업장은 따지 못한 채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청의 고용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듬해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광주의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권오설은 만세운동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어 감옥에 갇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생은 민족의식이 더욱 성장하게 되었고 출소 후 고향으로 돌아와 독립운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된다.

선생은 먼저 노동서사 건물에 원흥학술강습소를 열어 교장 겸 교사로 활동하며 계몽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1920년에는 농민조합과 청년회를 조직한다. 그 후 안동청년회에서 만난 동지들과 함께 풍산소작인회를 조직하고 화성회, 화요회, 조선 노동자 총동맹 등에 가입하여 서울과 안동을 오가며 농민투쟁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1925년에 조직된 조선공산당을 이끄는 핵심인물이 되어 사회주의운동 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가일마을이 ‘안동의 모스크바’라는 별칭을 얻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1926년 권오설 선생과 경북의 여러 독립운동가들은 순종의 국장일을 맞아 온 겨레가 함께 참여하는 항일투쟁운동을 일으킬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종교계, 학생계, 청년계의 통합을 이끌어 나간다. 그러나 일을 추진해 나가던 중 계획이 노출되고 6월 4일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고 만다.





그로 인해 투쟁운동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다행히 그와 뜻을 같이했던 민족 지성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전개된다. 바로 6.10 만세운동이다. 6.10 만세운동은 이후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통합을 이끈 신간회 설립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권오설 선생은 체포된 후 혹독한 고문으로 몸이 많이 상하게 된다. 그럼에도 옥중에서 고문경찰들을 고발하는 등 법정투쟁을 벌여 나간다. 그러다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되고 복역을 하던 중 출소를 100일 남겨둔 1930년 4월 17일에 서대문형무소에서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의 시신은 철관에 담겨 납땜으로 철저히 봉해진 채 가족들에게 보내졌으며 일제의 삼엄한 경비 아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공동묘지에 묻힌다. 선생의 몸에 남아있던 심한 고문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일제의 계략이었다. 그러다 2008년에 부인과 합장을 하기 위해 봉분을



여는 과정에서 철관이 드러나게 되고 현재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권오설 선생과 마을 청년들이 혁명을 꿈꾸며 빛을 내던 시절로부터 정확히 100년이 지난 후 노동재사는 '가일서가'라는 이름으로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주인을 만나 씻기고 다듬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내려온 주인 부부는 그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과 잘 맞을 장소를 찾던 중 가일마을을 알게 되었고 공간의 역사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부부는 노동재사가 서가의 자리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집안 구석 켜켜이 쌓여있던 먼지를 털어내고 불필요한 구조물을 없애가며 한옥을 원래의 모습으로 수리했다. 부부의 가치 있는 노동으로 노동재사는 가일서가로

다시 태어났다. 가일서가에 처음 방문을 하면 자칫 전통적인 한옥과 예민해 보이는 주인 부부가 조화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은 100년 전 이곳의 권오설 선생과 어딘가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이곳을 쓸고 닦고 고치고 다듬는 자신들의 노동이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그들만의 인사라고 여기며 남자 주인은 스스로가 이 공간의 머슴 '돌쇠'가 되기를 원했다. 자연스럽게 여자 주인은 '마님'이 된다.

2020년 10월 『국회도서관』에 실린 '마님' 김현정님의 글 일부를 소개한다.



당신이 꿈꾸던 유토피아는 어떤 곳인가요.

저는 공간과 사람도 인연이 있다고 믿어요. 이 공간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당신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했다는 건 분명 운명이겠지요. 당신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이곳까지 철관 속에 누운 채 돌아온 지 90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나보다도 훨씬 어린 서른 셋에 세상을 떠났더군요. 이런 소식을 전해써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는 당신이 그토록 그리던 독립은 했지만,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사회주의 이념을 따르던 당신의 동생들과 마을의 청년들이 모두 북한으로 가버렸으니 당신의 이야기를 전할 사람이 없었던 것도 당연한 것 같네요. 당신이 목이 터져라 외쳤을 모두가 배꼽지 않는 나라도 아직은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답니다. 지금도 끼니를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요. 당신이 꿈꾸던 유토피아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안타깝게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 공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바라던 소박하고 당연한 꿈이 전해지길 바라며 이곳을 지켜가는 것뿐이겠지요. 이 공간에서만큼은 자연을 돌아보고 이치를 파악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당신이 보기에 이곳이 아주 훌륭한 책방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책방주인이라고 하기에 남편과 저는 여전히 미숙하고 서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응원해 주세요. 제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이 공간에서 당신의 뜻을 기억하고 이곳에 오는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부디 그곳에서는 자유롭고 평온히 지내세요.

2020년 9월

당신이 사랑하던 가일마을에서

김현정 올림



가일서가는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운영된다. 서가에서 책을 구입한 후 원한다면 소분된 원두를 구입해 커피를 마실 수도 있다. 커피는 남자 주인인 돌쇠가 직접 내려준다. 주변에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터라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주인 부부가 제공하는 작은 배려이지만 커피 맛을 본 후로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책을 사는 역전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서가에서 판매하는 책은 주로 독립출판사의 서적과 어린이 서적들이며 서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리운익' 출판사의 책들도 판매하고 있다. 가일서가에서는 기획전시나 도서 관련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행사 소식에 항상 귀를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행사가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데다가 수용 인원이 한정적이라 조기 마감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방문객들의 추억을 사진으로 기록해 둘 수 있는 흑백사진 전문 사진관, 「조이사진관」도 운영되고 있으니 꼭 함께 이용해 보시기를 바란다.

안동의 맛

글, 사진 이희철



반월커피



-  **주소** 경북 안동시 임하면 경동로 1953
-  **전화번호** 010-7486-7600
-  **영업시간** 13:00 ~ 20:00
-  **휴무일** 매주 월요일

반월커피는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내앞마을에 새로 문을 연 카페이다. 외관은 일반 가정집처럼 생겼지만 과거 스튜디오로 사용하던 곳이라 채광이 좋고 내부 인테리어도 공간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엑셀런트 라테, 자몽허니블랙티를 주문하고 구석구석 훑어보았다. 테이블마다 각기 다른 디자인의 창문과 풍경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벚꽃잎이 흩날리는 봄과 단풍잎이 노랗게 익어가는 가을에 방문하면 좋을 것 같다. 주변 갈만한 곳으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과 반변천, 백운정 개호송, 임하호캠핑수상레저타운 등이 있다.



Tea수완은 안동시 옥정동 한옥마을 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한옥 찻집이다. 잘 자란 잔디와 예쁜 꽃들 있는 작은 마당과 길게 뻗어있는 텃마루가 인상적이다. 홍차, 우롱차, 보이차, 하동 햇차, 말차 등 다양한 종류의 티를 판매하고 있고 차 종류에 따른 다양한 다기 세트가 한쪽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음료를 주문하면 최대 4인이 들어갈 수 있는 분리된 방으로 안내해 주신다.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차 향기 음미하니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시간이었다. 다도를 잘 몰라도 사장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여유롭고 한적한 한옥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린다.



Tea수완



주소 경북 안동시 태사길 65-50



전화번호 010-6425-6707



영업시간 13:00~19:30 (Last order 19:00)



휴무일 매주 월, 화요일





야초원숯불왕갈비는 안동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지만 맛집으로 소문나 식사시간에는 손님으로 가득하다. 식당으로 들어가면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2인 기준 돼지갈비 3대, 3~4인은 4대가 나온다.(돼지갈비 1대 14,000원) '20초의 향기'라는 안내가 있는데 한쪽을 20초 정도 익히고 뒤집어 자른 뒤 중앙으로 모아 20초에 한 번씩 뒤집어주면 갈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한다. 바쁜 와중에도 사장님이 오셔서 마지막 갈빗대까지 야무지게 먹을 수 있는 팁도 알려 줘서 깔끔하게 먹을 수 있었다. 고기에 진심인 분이 간다면 조금 멀어도 그 수고스러움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야초원숯불왕갈비



-  주소 경북 안동시 북순환로 364
-  전화번호 0507-1423-6688
-  영업시간 11:30 ~ 21:00
-  휴무일 매주 화요일





옥정밀은 안동의 특산물 간고등어를 활용한 다양한 퓨전 음식을 판매하는 한옥 레스토랑이다. 고등어 스테이크 파스타, 고등어 아란치니, 고등어 버거 이렇게 3가지 메뉴에 고등어가 들어가고 이 매장 추천 인기 메뉴라고 한다. 이 중 파스타와 아란치니 두 가지 메뉴만 주문하고 버거는 다음 방문을 기약했다. 고등어 스테이크 파스타는 향긋한 마늘이 들어간 오일 파스타 위에 잘 구운 고등어와 루꼴라가 올라가 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고등어 아란치니는 이탈리아 요리로 라구소스, 모짜렐라, 밥, 순살 고등어 등을 섞은 뒤 빵가루를 입혀 튀겨낸 음식이다. 고등어 살코기가 부드럽고 비린 향이 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옥정밀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음식의길 87
전화번호 070-4086-9994
영업시간 11:30 ~ 21:00
휴무일 매주 일요일



화산 기슭은 가르고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을 잇는 유교문화길

글 이동백 시인



병산 등성이에서 내려다 본 병산서원과 화산

지난가을, 병산에 오른 일이 있었다. 병산 남쪽 기슭은 산불이 나는 바람에 민둥산으로 변했는데, 병산서원 쪽 병산의 수림은 초가을 빛을 질게 띠고 있었다.

병산 등성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천길 벼랑 아래로 낙동강이 병산서원을 옆구리에 끼었다가 곧장 화산 밑으로 굽이져 흘러 하회 마을로 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그 낙동강은 그 가장자리에다 습지를 펼쳐 놓았다. 병산서원을 에워 두른 화산은 길게 뻗어 하회 마을까지 이어졌다. 그 화산 기슭을 따라 유교문화길이란 이름을 단 작은 오솔길이 나 있을 터였다. 그날 병산 산등성이에서 언젠가는 그

유교문화길을 걸어보리라 마음먹었는데, 마침 그 기회를 얻어 병산서원을 찾아갔다.

풍산에서 풍천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다가, 도청에서 나오는 길과 마주치는 네거리에서 병산서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했다. 거기서 조금 달려 삼거리에 이르러 하회로 들어가는 길과 헤어져, 그대로 직진해서 달렸다. 차가 굽이를 돌아 산길로 들어서자, 길은 비포장길로 바뀌었다. 유홍준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소개하면서 널리 알려진 비포장길이었다. 차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길바닥에 흙이 파여서 통행하기에는 불편했다.



병산 습지

출렁출렁 흔들린 끝에 병산서원 주차장에 닿아 주차하고, 서원으로 난 길을 따라 오백 미터 정도 걸어 병산서원에 도착했다.

서원 관람을 일단 뒤로 미루고, 유교문화길로 들어섰다. 이 길은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을 연결하는 길이다. 길은 병산서원에서 700M를 낙동강을 따라가다가 방향을 북쪽을 틀어 화산 기슭으로 이어졌다.

화산에 닿기 전에 길과 강 사이에는 넓은 습지가 들어서 있었다. 습지에는 떡버드나무가 군락을 이루는 가운데 뽕나무, 미루나무, 시무나무 등이 그 틈에 끼어 자라고 있었다. 습지의 그 나무들은 이제 녹음의 철을 맞은 듯 짙은 녹색을 띠고 있었다. 습지의 나무가 시야를 가려 길에서 강의 물을 바라볼 수 없었다.

강심을 벗어난 길은 화산 벼랑을 타고 500M쯤 목책에 기대어 나 있다. 벼랑길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화산을 가로질러 하회 마을로 이어졌다.

비탈길을 거의 올라간 곳에 설치된 전망대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았다. 병산이 낙동강 건너에서 우뚝 솟았는데, 그 남쪽으로 솟은 산은 지난해 산불로 민둥산이 되어 있었다. 한편 병산 밑을 흘러나온 낙동강은 습지를 휘어 감으며 방향을 바꾸어 전망대 아래를 지나갔다. 물은 검푸른 빛을 띠었는데, 그 검푸른 빛 사이로 에메랄드빛이 길게 띠를 이루며 서려 있었다. 강의 남쪽에도 습지가 들어섰으나, 북쪽의 습지보다 작은 데다가 나무도 듽성듬성 컸을 뿐이다.

그 전망대엔 ‘내 눈물 웁열웁열 모두 모여 흐르는 낙동강’을 노래한 안도현의 시판이 서 있었다.



목책으로 된 유교문화길

이 길에는 김남주의 시판도 켜는데, 이를 지나서 거목재 정자에 닿았다. 병산서원에서 한 시간 남짓 걸리는 까닭에 쉬어가라고 지은 정자인 듯했다. 여기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땅섬이 길쭉하게 강에 붙어 있었다. 땅섬은 강줄기가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지금은 섬 노릇하지 못하고 있었다. 거목재 정자에서 1.5km 정도 내리막길을 걸어 하회 마을과 부용대를 뚜렷하게 바라다볼 수 있는 곳에 도착했다. 이쯤에서 유교문화길은 하회마을길로 바뀌었다. 이 유교문화길은 왕복 8km, 쉬엄쉬엄 걸어 두 시간 반쯤 걸렸다.

하회마을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바라본 낙동강은 하회들에 막혀 그 모습을 감춰버렸다. 그러나 강은 지구의 껍질에 달라붙어 무장무장 흘러 하회 마을로 감돌아들 것이다. 마침내 강은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섭리를 인간보다 명철하게 알아서 물태극산태극의



거목재에서 바라본 하회 마을



거목재 정자

하회 마을을 자신의 곁에 지었을 것이다. 그리곤 마을의 건너 편에다는 창검을 세우듯 부용대를 우뚝 세워놓은 것이리라.

강의 역사(役事)가 이렇게 하회의 지형을 형성했다면, 인간의 역사(歷史)는 하회의 문화를 이룩했을 것이다. 그 문화의 중심에서 서애 류성룡과 같은 선비가 태어났고, 그 가장자리쯤에 허 도령과 같은 민초가 존재했을 것이다. 그 문화는 충효당, 양진당 같은 전통 가옥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연행한 힘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실제로 하회 마을 사람들은 물의 이치를 알아, 넌지시 그 물을 다스려 왔다. 사람들은 강과 화해로울 때 부용대 절벽에 줄불을 내리고, 강에 배를 띄워

선유(船遊)했다. 그 참에 강도 흥에 겨워 너울너울 그 몸을 흔들거렸을 것이다.

하회 마을은 이제 유명 관광지로 변했다. 하회를 제대로 관광하자면, 우선 마을을 봐야 한다. 6백 년 역사를 지닌 풍산 류씨가 형성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진당과 충효당에서 하회 선비의 삶을 들여다보았다면, 내친 발걸음으로 만송정 술숲으로 들어가 낙동강과 멋지게 어울리는 소나무의 운치에 젖어봐야 한다. 그리고 만송정에서 낙동강 건너 우뚝 선 부용대를 무심히 바라볼 일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하회 마을 하면 우선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기억할 것이다. 실제로 하회별신굿탈놀이 관람은 하회 관광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3월부터 12월까지의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5일간, 오후 2시에 공연을 시작한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기 위하여 마을곳의 하나로 연희되는 탈춤으로 풍자와 해학이 넘친다. 선유줄불놀이도 놓쳐선 안 될 하회 마을의 민속놀이이다.

유교문화길이 하회마을길로 바뀌는 지점에서 하회 마을을 바라보며, 하회 마을의 의미를 되새겨 본 후, 왔던 길을 되짚어 병산서원으로 돌아왔다.

뒤로 미루어두었던 병산서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 들머리에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병산서원>이란 표석이 서 있었다.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병산과 낙동강



병산서원 만대루



병산서원 입교당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등 아홉 개 서원이 2019년 7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이란 이름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것이다.

북례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오르고, 만대루 밑을 지나서 병산서원 안으로 들어섰다. 입교당을 잠시 살핀 후에 입교당 마루에 걸터앉아 앞을 내다봤다. 여덟 개의 기둥이 받치고 만대루가 섰고, 그 너머로 병산이 위세 당당하게 솟아 있었다. 병산은 오후 늦은 시간에 비춰드는 햇빛을 정면으로 받음으로써 햇빛에 가려 어둡게 보이는 아침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한다. 늦은 오후 만대루에 앉아 보아야, 병산과 낙동강의 멋진 경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 '푸른 절벽은 마땅히 늦은 오후에 봐야

한다[翠屏宜晚對]'는 데서 따와 '만대루'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만대루가 아닌 입교당에서 바라봐도 병산은 과연 그 이름에 걸맞은 풍경을 보여주었다.

입교당 계단을 내려와 뒤편에 자리 잡은 존덕사로 들어갔다. 존덕사는 열두 계단 위에 섰는데,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는 오래된 배롱나무가 무리 지어 서 있었다. 이 배롱나무는 서애 선생이 이 서원을 지을 때 심은 것이어서 그 나이가 사백 년이 넘었다. 아직은 꽃이 필 시절이 아니어서 아쉬웠지만, 나무의 세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줄기도 미끈한 것이 멋이 있었다. 이 꽃이 한창 피어나는 여름은 '書院'은 일순 '花院'으로 변한다. 배롱나무꽃이 필 무렵에는 병산 산마루에 올라 병산서원을 내려다보아야 한다. 병산서원은 수천의 꽃으로 치장한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화원花園이 되어 있을 테니까 말이다.



부용대에서 내려다 본 하회 마을



만송정 숲

관람을 마치고 동쪽으로 난 작은 문을 나서자, 병산서원의 또 하나의 명물인 달팽이 뒷간이 햇빛을 받고 앉았다. 원래 이를 머슴 뒷간이라 했다던가. 어쨌든 뒷간답지 않게 이쁜 데가 있는 뒷간이었다.

그 길로 주차장으로 방향을 잡아 걸었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차량 몇 대가 줄지어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다. 병산의 경치를 옮겨 감상하려나 보다. 푸른 절벽은 늦은 오후에 대할만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날이 저물기 전에 부용대에 올라보기 위해 서둘러 비포장 길을 덜컹거리며, 차를 몰아 달렸다. 포장길로 들어서기 전, 산기슭에 차를 세우고 풍산들을 내려다보았다. 풍산을 소재지가 동북쪽으로 들어섰고, 그 앞으로 풍산들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 너머 먼 곳에는 학가산이 높이 솟았는데, 아지랑이가 끼어 멀어 보였다. 소산 마을 옆을 스쳐온 신역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곳에는 습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 습지에도 숲이 우거져 푸른 빛을 한창 발산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용대에 올라 하회 마을을 조망할 요량으로 풍천면 소재지를 거쳐 광덕교를 건너 광덕솔밭길을 따라 부용대로 들어가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곧장 부용대 가는 오르막길로 들어섰다. 부용대에 이르는 250m 오르막길은 그리 가파르지 않아 걷기에 힘들지 않았다. 부용대 등성이에 도착하니,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설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나뉘었다. 부용대 절벽 쪽으로 나가자, 하회 마을이 발아래 머물렀다.

하회 마을은 부용대와 동쪽의 화산, 첩첩이 포개진 남쪽 산들 가운데에 아늑하게 들어앉아 있었다. 검은 기와를 얹은



류운룡의 정자인 겸암정

양반집과 노란 이엉을 이은 민초들의 집이 적절하게 섞여 마을을 이루었다. 마을 가장자리를 휘돌아 나가는 낙동강은 부용대 언저리에 이르러 흰 모래펄을 넓게 펼쳐 놓았다. 마을과 모래펄 사이에는 만송정이 검푸른 띠를 두르고 늘어섰다.

류성룡 같은 명재상이 태어나서 징비록을 쓴 마을, 허도령이 탈을 깎다가 부정을 타서 죽고 하회별신굿탈춤이 추어지는 마을, 잠깐 사이에 하회 마을의 이미지들이 뇌리를 스치고 갔다. 이러듯 유서 깊은 마을을 한눈으로 내려다볼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다. 감회에 젖어 있을 즈음, 부용대 절벽 끝에서 술개처럼 구만리 장천으로 날아올라 하회 마을을 휘돌다가, 뽕나무 숲가루 줄불이 부용대 절벽을 타고 내려오듯이, 만송정 푸른 솔 우듬지에 내려앉고 싶었다.

이런 욕심을 다스리며 겸암정사로 내려갔다. 노근이 드러난 부용대 기슭을 타고 5분 정도 내려간 곳에 겸암정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겸암정은 겸암 류운룡이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가르치던 정자인데 사랑채와 안채로 이루어져 있었다. 겸암정은 경사가 가파른 곳에 지었기 때문에 누각 형식을 취하고, 담장이 따로 없을 뿐 아니라 마당조차

좁았다. 난간을 두른 겸암정은 양쪽에 방을 내고 중간에 마루를 설치한 구조였다.

좁은 마당에 서서 강쇠를 따라 몇 그루의 오래 묵은 참나무 사이로 하회 마을을 건너다보았으나, 만송정 숲 때문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정자 밑으로 흐르는 낙동강 역시 풀숲에 가려서 겨우 그 모습을 확인할 뿐이었다.

겸암정 옆에는 겸암을 추모하여 서애가 지은 시를 새긴 시비가 서 있었다.

우리 형님 정자 지어
겸암정이라 이름 붙였네
대나무 그림자 섬돌을 쓸어내리고
매화는 뜰 가득 피어 있구나
발끝엔 향그러운 풀 냄새 모이고
호젓한 길에는 흰 안개 피어나네
그리움 눈물 되어 소리 없이 내리는네
강물은 소리 내어 밤새 흐르네

다시 부용대로 올라와서 옥연정사로 내려갔다. 옥연정사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화천서원이 있었다. 겸암 류운룡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었다. 서원의 문루인 지산루를 잠깐 쳐다보고 바로 옥연정사로 들어가는 오솔길로 들어갔다.

옥연정사는 서애 류성룡이 만년에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지은 정자로 특히 임진왜란 당시의 경험을 기록한 『징비록』을 쓴 장소로 유명하다. ‘옥연’은 부용대와 하회 마을을 휘감아 흐르는 깨끗하고 맑은 물빛이 마치 옥과 같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정자 뒤편 언덕에 올라 정사를 내려다보니, 대문채를 비롯하여 사랑채, 안채, 별당의 기와지붕이 서로 맞닿아 있는데, 담장 밖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었다.

옥연정사를 돌아 나오는 길옆에는 한 무리의 대나무가 섰다. 지나가는 바람에 대나무 잎이 갈리는 소리가 주변의 적막을 깨우고 들었다. 저만치 부용대의 그림자가 낙동강을 건너 만송정 숲을 덮어 누르고 있었다.



『징비록』이 쓰인 옥연정사

나를 마주하는 사색의 공간 안동 맹개마을

글 정의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의 맹개마을은 찾아가는 길도 쉽지 않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다리가 없어서 물이 넘치면 배를 타고 물이 어느 정도 마르면 트랙터를 타고 간다. 자갈길을 덜컹거리며 강물을 건너니 몸이 절로 들썩였다. 멀리서 볼 때는 느리기만 했는데 막상

올라타니 제법 속도가 난다. 사진을 찍다가 흑여 강에 빠뜨릴까 휴대폰을 왼 손에 바짝 힘이 들어갔다. 익숙하지 않은 승차감도 색다른 기분에 즐겁기만 하다. 트랙터를 타고 천천히 건너니 투명한 강물도 파란 하늘도 더욱 잘 보인다. 퇴계 이황 선생은 이곳을 여행하다 벗인 벽오 이문량을 기다리며 그가



맹개마을의 필수 교통수단 트랙터



맹개마을의 전경

오지 않자, 먼저 길을 나서면서 “나 먼저 그림 속으로 들어가네”라고 읊었다고 한다. 한 폭의 산수화 병풍 같은 이곳에 오니 나도 모르게 시인이 될 것 같다.

‘산봉우리 봉긋봉긋, 물소리 졸졸
새벽 여명 걷히고 해가 솟아오르네
강가에서 기다리나님은 오지 않아
내 먼저 고삐 잡고 그림 속으로 들어가네’

- 퇴계 이황 -

‘편안한 강마을’을 뜻하는 맹개마을은 낙동강과 학소대가 수호하듯 감싼 모양을 하고 있다. 학소대는 학이 날아와 새끼를 치고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육지의 외딴 섬 같은 이곳은 차도 전기도 들어오기 힘든 벽지로 대대로 살던 몇 가구의 주민들도 불편을 견디지 못해 이주한 땅이다. 2007년 잘나가던 IT 기업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터를 잡은 박성호, 김선영 대표 부부는 척박한 땅을 일구고 큰 돈을 들여 전기를 끌어왔다.



맹개마을의 6월 황금 밀밭



맹개마을의 9월 만개한 메밀꽃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겨울과 봄에는 밀을 키우고 같은 자리에 메밀을 키워 가을에 수확했다. 수확한 유기농 밀로 술을 빚고 빵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매년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가는 안동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특히 끝없이 펼쳐지는 황금빛 밀밭과 하얗게 흐드러진 메밀밭은 MZ세대들의 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3만 평의 메밀밭 옆으로는 소박한 건물 몇 동이 자리했다. 느긋한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숙소 '소목화당', 강 건너 양조장에서 만든 술을 숙성시키는 토굴 '맹개술도가'와 쉼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체험장 '미천 장담'은 15년의 시간 동안 쌓아 올린 부부의 노고와 애정으로 반짝거렸다.

각자의 의미가 담긴 이름을 가진 공간들이 훨씬 정겹게 느껴진다. 공간의 이름을 부르고 뜻을 새기는 과정은 주인의 뜻에 따라 공간을 향유하고 이용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된다. 비교적 최근 완공한 '미천장담'은 퇴계 이황 선생의 시에서 따왔다. 우리말로는 '매내긴 쓰' 물길이



정갈한 숙소 소목화당



치유와 쉼의 공간 미천장담

숨을 고르고, 깊고 유유히 흐른다는 의미다. 여러 내가 모여 마침내 쏘를 이룬다. 맹개마을의 미천장담은 퇴계에게 잠시 발길을 멈추고 쉬어가는 휴식처이자 사색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천천히 마을을 걷다 보니 다른 계절의 모습도 궁금해졌다. ‘인증샷에 담을 만한 컷’을 위해 단발성으로 방문하는 여느 트렌디 한 장소들과는 달리 맹개마을은 재방문률도 높은 편이다. ‘소목화당’을 이용하는 숙박객들은 흔한 편의점도 없고 나오는 쓰레기까지 스스로 가져가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소소한 불편함마저도 여행의 즐거움으로 남는다.

소목화당에 묵는 큰 즐거움 중 하나는 마음 놓고 음주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지의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명품 우리 술 진맥 소주를 드디어 만났다. 진맥 소주는 3만 평의 밀밭에서 직접 수확한 유기농 밀과 물로만 빚고 증류한 국내 유일의 밀 소주이다. 씨앗을 심는 것부터 술을 병에 담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이 맹개마을과 맹개술도가에서 이루어진다.



진맥소주가 익어가는 맹개술도가의 토굴

‘진맥 소주’만의 술 향기와 맛을 내기 위해 그 원료를 직접 재배하고 가공한다. 진맥 소주는 21년과 22년, 2년 연속 국제적인 권위의 주류 품평회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계 증류주 대회(SFWSC) 소주 부문에서 베스트 소주와 더블 골드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더블 골드메달은 40여 명의 평가인 전원이 골드 점수를 부여했을 때만 수상이 가능하다 하니 우리 소주의 위상을 널리 알린 기분 좋은 소식이다. 지역다움을 토대로 한 ‘연결’과 ‘공유’의 아이디어가 소비자의 가치 소비와 호응한 결과다.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도 주문이 많은 탓에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대표님의 행복한 고민이 반가웠다.

시그니처인 40도 진맥 소주는 다양한 풍미가 일품이다. 잔에 따르자마자 밀로 만든 것을 뿔내듯 고소한 곡물의 향이 느껴졌다. 연한 새콤한 향에 이에 달콤한 향이 순서대로 올라온다. 맑고 투명한 진맥 소주를 한 모금 삼킨다. 알코올이 확 치고 올라오더니 곧 은은하고 부드럽게 목으로 넘어간다.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밀알의 에너지와 향기로운 밀꽃을 삼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상온에 둔 채로도 마시고 얼음에 채워서도 마신다.

최근 셀럽이 만들었다는 소주부터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패키지로 무장한 다양한 전통주가 쏟아진다. 대형 온라인 마켓에도 전통주 전문관이 등장했다. 바야흐로 전통주의 시대이다. 힘하며 빠르고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진맥 소주는 느낌과 깊이를 고집한다. 10월에 심은 밀을 이듬해 6월에 수확해 가을에 술을 담근다. 증류를 하고 또 1년을 숙성시켜야 만날 수 있다. 5㎡의 밀밭과 농부의 땀 한 말이 더해져야 비로소 진맥



맹개마을의 '별이 빛나는 밤'

소주 한 병이 만들어진다는 박성호 대표의 진심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멋진 풍광에 웬지 술이 더 달다.

진맥소주 몇 잔에 알뜰뜰해져 바람을 쏘이려고 나왔더니 그새 밤이다.

“우와! 엄마! 하늘 좀 봐.”

아이의 성화에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끝도 없이 별천지가



떨쳐진다.

좀 더 눈에 담고 싶어 머리를 점점 더 뒤로 젖히다가 예라 하고 바닥에 별령 드러누웠다. 마당에는 ‘누워서 별 보기’ 전용 널찍한 돌까지 준비되어 있다. 달빛에 메밀꽃도 함께 금빛으로 일렁였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오리온 카시오페이아 같은 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별자리를 미리 알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만 하다. 다음번 꼭 다시 와서 별들의 이름을 찾아 주겠노라 약속했다. 대표님이 빌려주신 레이저 빔으로 이리저리 별들의 선을 이어 우리만의 별자리를 만들었다.

방해하는 가로등 불빛 하나 없이 조용한 어둠 속에 제각기 다른 크기로 빛나는 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오래 별을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 아주 천천히 별들이 움직인다. 커다란 우주의 스크린을 통해 느린 영화 한 편이 상영되고 있다. 배경음악도 대사도 한 줄 없지만 그 어떤 영화보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밤하늘의 일부가 되고 우주가 되었다. 도시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보기가 쉽지 않다. 그 많던 별은 다 어디로 갔을까? 별이 사라진 게 아니라 별과 나 사이를 도시의 먼지가 가로막고 도시의 불빛이 별빛을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밤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다.

종일 일에 치어 막히는 도로의 앞차 뽕무니만 보고 내 발밑의 땅만 보고 종종 거리며 집으로 들어간다. 찰나 시간을 살다가는 인간의 삶을 생각하면 나를 붙잡고 괴롭히는 고민과 욕심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또 깨닫는다. 시끄러웠던 속이 편안해졌다.

앞으로 나는 이곳에 몇 번이나 더 오게 될까.

충분히 숙성되어야 좋은 맛이 드는 술처럼 조급한 마음은 이곳에서 접어두게 된다. 인스타그램의 한 컷에 담을 멋진 곳과 휘황찬란한 음식보다 오롯이 내 감정에 충실할 수 있는 곳,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보다 평생 꺼내 볼 사랑하는 가족과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곳. 다음에 올 때는 노트와 펜, 그리고 책을 챙겨와야겠다. 내가 보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냥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관찰하고 곱씹으며 그림으로 글로 남겨두고 싶다.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없었던 정답을 자신으로부터 찾을 수 있게 되는 ‘진짜 여행’을 하고 싶다면 부디 맹개마을을 찾아오시길 바란다.

안동문화재야행
월영야행

달빛이 들려주는
안동의 문화재 이야기

2022. 7. 28 ~ 7. 31 (4일간)
안동댐 월영교 일대

안동을 선물하다!

안동 여행 기념품공모전

접수기간
2022. 9. 13. ~ 19. 9
10:00~17:00 (주말 제외 5일간)

공모주제

- 추석과 가지를 담은 연등
- 안동의 문화 또는 관광지의 특성을 모티브로 한 공예품 및 공산품 등 관광의 대상 한데 가능한 기념품
- 안동의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품, 문구상품, 책자상품 등

공모분야

- 국내외의 관광지역 안동 방문 시 구매 가능한 상업성 판매성 및 공산품 등 관광의 대상 한데 가능한 기념품
- 안동시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역사, 문화, 전통 등을 담은 기념품

응모자격

- 대한민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모든 국민

응모제한

- 상품화 가능성이 없고 대량생산 및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 로그, 일일일, 캐릭터 등 사용으로 저작권 문제가 있는 제품
- 과도한 고가상품이거나 보편이나 운반이 곤란하여 관광기념품으로 상품화가 어려운 제품
- 타 공모전에 출품하여 당선된 작품
- 제품, 포장, 설명서 등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지 않은 제품
- 기존 상품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모방하여 출품하였을 경우,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음

접수처

- 경북 안동시 죽계동 200 (제)한국정신문화재단 기념품공모전 담당자 말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택배)
- ※ 우편접수(택배)는 9. 19.(월) 17:00까지 도착해야 함
- ※ 작품 등 출품자용으로 부착할 필요 없음 (물거치기로 제품명, 주소지, 입도율, 우편번호 등)

시상내역

구분	작품 수	시상료
작품	1등 100명	1,000만원
공상	2등 100명	500만원
공상	3등 100명	300만원
공상	4등 100명	150만원
합계	100명	300만원

※ 심사결과 지역 특성을 반영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작품 수는 변동되거나 있을 수 있음. 시상금은 한 달간 지급 후 지급
※ 제작비는 자부담 20%를 원칙으로 하며, 주요 원천 장려금에 함

문의처
(제)한국정신문화재단 054-840-3473

제 9 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22

주제: 대전환, 그 너머의 세상 - 인류를 위한 질문

2022. 9. 21.(수) - 9. 23.(금)
안동국제컨벤션센터(ADCO)

제9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개최

- 기간: 9월 21일(수)~9월 23일(금)
- 장소: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안동의 유서 깊은 정신 문화를 바탕으로 오늘날 필요한 인문 가치를 모색하는 '제9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 9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 9회를 맞은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은 '대전환-그 너머의 세상(인류를 위한 질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은 모색(전문가 세션), 구현(사례탐구 세션), 공유(대중 세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세션은 시대에 필요한 가치를 알아가고자 하는 누구나 제한 없이 참가가 가능하다.

※ 사전등록 : www.adf.kr (8월 중 예정)

※ 문의처 : 한국정신문화재단 인문정책팀(054-840-3462)

2022 경북 북부지역 여행상품 발굴 공모전

요약

- 주최** 2022 경북 북부지역 여행상품 발굴 공모전 (안동, 문경, 봉화, 상주, 영덕, 영양, 영주, 예천, 울진, 의성, 철원)
- 참모목적**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고유 특색을 담은 숨은 여행상품 콘텐츠 발굴 및 지역을 통한 로컬관광 활성화와 지역 연계 여행상품 개발
- 공모주제** 경북 북부 11개 지역을 스토리텔링한 연계 관광콘텐츠
- 신청대상** 경북 북부 11개 시군 소재 관광기업, 사회작기업, 협동조합, 여행사, 마을공동체 등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 지원규모** 1억5천만원 (심사에 따라 차등 지원)
※ 선정된 1개 단체당 최소 1천만원 이상 지원
- 지원내용** 지역 여행상품 개발, 홍보 콘텐츠 제작, 관광 기획 아카데미, 전문자 자원 시민 체험단, 판로개척 지원 등
- 응모방법**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관광 모니터링단 ‘안동유람단(유라미)’ 발대식 개최

- 일자: 2022년 5월 28일
- 장소: 구 안동역 모디684

안동시와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은 안동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단 ‘안동유람단(유라미)’ 발대식을 가졌다. 유라미는 안동의 각 권역별 관광 코스를 점검 및 개발하여 안동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앞으로 유라미들은 다양한 미션 수행을 통해 안동 관광에 MZ감성을 한 스펀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탈놀이단’ 상설 공연 운영

- 기간: 5월 14일~11월 5일(매주 토요일) 14시~16시
 - 장소: 안동문화의 거리, 월영교, 낙강물길공원 등
- 안동시와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은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의 마스코트 ‘탈놀이단’ 공연을 진행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안동의 대표 관광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기존 무대형 공연의 한계를 탈피해 버스킹 게릴라 공연으로 진행된다. 화창한 주말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간다면 ‘탈놀이단’ 공연도 함께 즐겨보길 추천한다.



즐거움을 더하는 안동 관광 스탬프 투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는 안동 관광 스탬프 투어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스탬프 투어는 관광지를 방문해 스탬프를 획득하면 기념품을 받는 미션 수행형 프로그램으로 안동시는 ‘모바일 스탬프투어’와 ‘걸어서 스탬프투어’ 2종을 운영 중이다.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20개소의 지정 관광지에서 스탬프 5개를 찍을 때마다 엄마 까투리 인형 키링 4종 중 하나를 얻을 수 있으며 20곳 모두 방문한다면 엄마 까투리 인형 키링 4남매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

‘걸어서 스탬프투어’는 기존 7곳의 지정 관광지에 올해 새롭게 탈바꿈한 복합 문화 플랫폼 ‘모디684’가 추가됐으며 8개의 관광지에서 4개 이상의 스탬프를 획득하면 안동 이미지가 담긴 예코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5년 시작된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누적 다운로드 수가 20,000건을 넘어섰다. 올해 다운로드 수는 벌써 2,000여건을 돌파하였으며, 경품도 1,300여명이 수령하는 등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2. 임청각

글 김재라 안동MBC

임청각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이었던 석주 이상룡 선생님의 생가다. 안동 사람이라면 다들 잘 알겠지만, 이상룡 선생님의 가문은 수많은 독립운동을 배출하고 전 재산을 털어 신흥무관학교를 지원했던 곳이다. 그 감사한 집은 2년 전에 집 앞을 지나던 철길을 걷고 요즘 새로 단장 중인데 우연히 임청각에서 숙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 부끄러워지기 전에 이곳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저녁 늦게 임청각 사랑채에 입실했다.

늦은 시간이지만 바로 앞에 대로가 있어 주변이 밝아 흐린 날이었는데도 건물에서 강 건너가 훤히 보였다. 임청각을 지키고 계신 김호태 선생님께서 한옥의 저녁은 아직 쌀쌀하다며 방에 불을 넣어주셨고, 덕분에 감사하게도 일행과 잠시 불명을 즐길 수 있었다.

임청각의 위용은 대단했다. 어둠 속에서 장작의 불빛에 기대어 언뜻 살펴보아도 일반적인 고택과는 달리 건물이 아주 높았다. (고려시대 건축 양식이 섞여 있어서라는 설명을 나중에 들었다) 그 넓이도 엄청났는데, 사랑채로 들어가 문 하나를 지나니 안채가 나왔고 안채 마당으로 난 문을 지나니 행랑채가 나왔다. 행랑채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문이 따로 있었는데 시간이 늦어 안채와 행랑채에서 밤하늘을 구경하다 사랑채로 돌아와야만 했다. 무심코 돌아본 곳에는 군자정으로 향하는 문이 또 하나 있었다. 작은 궁에 들어온 느낌이





이럴까? 의미가 많은 곳이라 방문했는데, 예상 밖의 집 구조를 알게 되니 의미와 재미 모두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사 지식은 짧지만 몇 년간 촬영을 다니며 평생 본 적 없던 많은 고택과 유산들을 봤었다. 임청각은 여태 봤던 고택 중 가장 넓고 큰 고택이었는데 이마저도 원래의 99칸에서 50여 칸으로 줄어든 것이라 했다. 이 집에 살다 간 분들의 뜻도 깊지만, 집 자체로도 여러 가치를 가진 곳이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세안했다. 나는 휴일 낮에는 꼭 늦잠을 자는 편인데 이상하게 고택에서 잘 때면 항상 눈이 일찍 떠진다. 아침이면 은은하게 비추어지는 아침 햇빛 때문일까, 창밖으로 들리는 두런두런 말소리 때문일까. 전날 불 넣어둔 바닥이 따뜻해서 눈만 멀뚱히 뜨고 게으름을 부리다가 임청각의 아침 모습이 궁금해 이불을 접었다.

샤워실 겸 화장실은 임청각의 바깥 행랑채에 있다. 가로로 긴 이 건물은 행랑채 방향까지 이어있었다. 이 바깥 행랑이 밖에서 임청각을 보았을 때 보이는 긴 건물이었다. 임청각을 지키는 중한 성벽과도 같은 곳이었었는데 반대편엔 작은 창이 있고, 건물 안쪽으로 문이 있다. 화장실 칸마다 현대식 미닫이문에 나무로 된 문이 하나 더 있어 이중 자물쇠를 걸어두었다. (추위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로 보였다) 안은 깔끔한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내부는 세면대나 샤워실,





변기, 선반, 삼푸 및 치약 등의 용품도 갖추고 있다.

씻고 나와 어제 살피지 못한 건물 내부를 자세히 돌아보았다. 화장실 건물 오른쪽, 안채로 가는 방향에 어제는 보지 못했던 작은 표지판이 있었다. '임청각 작은 전시관'이었다.

어릴 때는 여행하면 즐거운 곳, 맛있는 곳,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곳을 다니는 게 좋았다. 수학여행에서 박물관을 방문해도 친구들과 수다만 한껏 떠들다 온 기억이 전부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여행을 가면 지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꼭 들르고는 한다. 건망증이 심해서 아무리 좋은 곳을 다녀오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곧잘 까먹는 편인데, 마음 든 것들은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엔 방문한 곳의 역사나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씻고 나오다가 발견한 임청각 작은 전시관은 무척 반가웠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지도였다. 지금은 동대구나 대전을 거쳐야 KTX를 타고 윗 도시로 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김천을 거치고 추풍령을 지나갔다. 지도에서 신기했던 점은 한양에서 평양으로 이어지는 파랗고 붉은 선들이었다. 지금은 이 지역들을 가기 위해선 대한민국 어디서 출발하더라도 비행기나 배를 타야

하는데, 안동에서 기차만 타고도 만주까지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란 사실이 새삼스러웠달까.

언제나 느끼지만, 역사책 한 줄로만 설명하기에 인간의 삶은 우주만큼 넓고 깊다. '32일간의 망명 여정'이라고 적힌 단어 너머로 몇 가지 마음들을 상상해 본다. 잠시 시집간 딸의 집에 들러 작별을 고한 석주, 그런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눈물 흘린 그의 딸, 생전 처음 겪는 고생에 놀랐을 어린 손녀들... 독립운동 지원을 위해 떠난 험한 망명길, 그 길에 오른 각 사람의 마음은 그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했을 것이다.

나는 안동의 이야기들이 참 좋다. 이곳은 지형적, 정서적으로 내가 자라고 생활했던 곳과 달라서 외국 같기도 함과 동시에 할머니 집이 있는 정겨운 동네 같아서 신기하다. 안동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역사의 페이지를 알게 되었다는 안도감도 든다. 이번 달에는 선배가 제작한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을 좀 들어봐야겠다.



임청각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 되어있어
고택숙박과 함께 전통체험이 가능함
단체인원 및 예약은 임청각 문의
(054-859-0025)

주소 : 경북 안동시 임청각길 63

☆ 안동, 지금 이곳

로그아웃, 쉼(Logout for REST)

〈로그아웃, 쉼〉은 도산면 예끼마을 인근에 위치한 선성현문화단지·산성공원에서 자연과 함께 1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안동 대표 ‘쉼’ 프로젝트이다. SNS 핫플레이스 선정 수상길을 끼고 있는 고즈넉한 이 곳에서 짜릿한 스릴과 편안한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올인원(All-in-one) 관광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 📍 **위 치** 선성현문화단지&산성공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산17-6)
- 🕒 **운영기간** 2022년 5월~8월 매주 토, 일 11:00 ~ 23:00
- ☎ **대표전화** 070-8885-8812
- 📱 **프로그램** 인스타그램 로그아웃, 쉼(@logout_rest)



좀비탈출어드벤처 - 지금 우리 안동은

안동 성희여고에서 촬영한 넷플릭스 화제작 ‘지금 우리 학교는’을 오마주해 만든 좀비 어드벤처 프로그램 ‘지금 우리 안동은’이다. 선성현문화단지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좀비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피해 무사히 해독제를 구한 뒤 탈출해야 하는 탄탄한 시나리오 기반의 체험 상품이다. 주간에는 전연령이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좀비 체험이 진행된다. 야간에는 선성현 한옥단지 전체를 사용하는 대탈출 어드벤처로 전문 배우들의 실감나는 좀비 연기로 오싹함과 짜릿함을 동시에 제공한다. 뜨거운 여름 날 선성현 한옥 관아에서 펼쳐질 공포 체험으로 무더위를 날려보자.

- 📍 **위 치** 선성현문화단지 동헌
- 🕒 **운영시간** 매주 토 14:00~22:00
- 🎫 **체 험 비** 주간 5,000원, 야간 15,000원





선성현 한옥펍(PUB)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가 한풀 꺾인만큼, 지친 심신을 달래고 힐링을 찾아 떠난다면 이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이곳 선성현 한옥펍(PUB)에서는 드넓은 안동호와 한옥의 매력을 식음료와 함께하여 오감으로 즐길 수 있다. 대표 메뉴로는 안동 시그니처 술인 안동 소주(샷 제공), 이육사(264) 와인, 안동 수제맥주 등이 있다. 또한 안동소주 기반의 다양한 칵테일(하이볼, 도산서원, 병산서원),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을 위한 목테일(mocktail)도 판매하니 남녀노소 즐길 수 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특별한 곳에서 운치있는 한 잔을 즐기고자 한다면 이곳을 찾아가자.

- 📍 **위 치** 선성현문화단지 마당&객사
- 🕒 **운영시간** 매주 토 15:00~22:00 / 일 15:00~20:00
- 💰 **가 격** 안동 소주 샷잔&간단 안주 4,000원, 264와인&치즈 8,000원 등



나만의 찻잎 찾기(with 아메니티)

누구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향과 맛을 찾아감에 즐거움을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욕구를 단숨에 채워줄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데, 바로 '나만의 찻잎 찾기' 체험이다. 어디서든 해볼 수 없는 오직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이다. 안동 티브랜드 아메니티(AMENITEA)와 콜라보를 통해 아메니티 시그니처 상품인 사과, 참마, 생강 차는 물론 찻잎을 자유롭게 배합해 자신만의 차를 만들 수 있다. 안동호와 수상길이 단숨에 보이는 쌍벽루 2층에서 진행되기에 시원한 강바람에 더위를 잠시 잊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바쁜 현대사회의 피곤함을 잠시 거둬내고 당신만의 향과 맛을 만들어보자.

- 📍 **위 치** 선성현문화단지 쌍벽루
- 🕒 **운영시간** 매주 토, 일 11:00 ~ 18:00
- 🎫 **체 험 비** 15,000원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초대합니다!

We invite you to Andong City: The capital of Korean Ethical Philosophy, inheriting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Education!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오시는 길

버스

서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부산 부산동부터미널(노포동) ▶ 안동
대구 동대구터미널 ▶ 안동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 안동

기차

서울 청량리역 ▶ 안동
부산 부전역 ▶ 안동
대구 동대구역 ▶ 안동



blog.naver.com/aftf



[instagram.com/andongtour](https://www.instagram.com/andongtour)



www.facebook.com/tourandong



'안동노닐기' 검색